

여수산단 오염물질배출 조작 수사 마무리

광주지검 순천지청, 5명 구속기소

78명 불구속기소 등 총 100명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형사 2부장 검사 김형주)은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와 관련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

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과 관련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측정대행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

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배출업체나 측정업체 임직원들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로 공모해 각 배출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결과를 실제 측정결과보다 낮게 조작한 혐의다.

또 실제 측정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함에 따라 공무원의 지도점검, 부과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

행방해)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배출업체의 한 직원은 측정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게 청구해 9500만 원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정탁의 대가로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을 송치받아 7차례 걸쳐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64)와 또 다른 대행업체 대표 B씨(49), 배출업체인 C사 전 공장장 D씨(53), E사 환경담당 임원 F씨(56)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세배 예절 배우는 아이들 2020 경자년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경남 함양군 연꽃어린이집 원생들이 예쁜 전통한복을 차려입고 세배 예절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20일 재할 끝내고 '무등산 품으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이하 광주센터)는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를 무등산에 방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치료 마치고 돌려보내

개소 후 1년 간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 249마리 구조

이날 방사된 하늘다람쥐는 지난해 12월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쥐 끈 끈이에 걸려 피부 등을 다쳤고, 광

주센터는 20여일 간 치료 재할 등을 진행해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 328호로 지

정됐다.

광주센터는 지난해 1월 본격적인 운영에 뒤 그 동안 광주 곳곳에

서 야생동물 62종 249마리를 구조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은 조류가 214마리(86%)로 가장 많았으며, 포유류 31마리(13%), 파충류 4마리(1%) 등 순이었다. 수리부엉이 새매, 솔부엉이, 샛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물 12종 53마리도 포함됐다.

구조 유형별로는 건물·차량 충돌이 96건(39%)로 가장 많았고, 어미를 잃은 '미아' 사례가 89건(36%), 인가침입 26건(10%), 끈끈이 등 기타 사례 38건(15%)이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설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위급상황에서 구조한 249마리의 야생동물 중 85건은 치료와 재활과정을 거쳐 처음 구조됐던 지역을 우선으로 해 자연으로 돌려보냈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단신◆

'홀로 조업' 어선 선장 잇따라 실종...해경수색 중

홀로 조업에 나섰던 60대 선장이 잇따라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3분쯤 전남 고흥군 남열해수욕장 북쪽 500m 해상에서 조업 중인 1.76톤급 어선 S호(승선원 1명)의 선장 A씨(64)가 전화도 받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인근 선박 선장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S호의 그물이 내려져 있고, 선내에 A씨의 휴대전화만 있는 것으로 미루어 A씨가 조업 중 해상에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서해청 소속 항공기 1대, 경비함정 4척, 민간구조선 5척을 동원해 표류예측시스템을 활용, 사고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이다.

S호는 선단선과 함께 14일 오후 3시52분쯤 고흥군 우천항에서 조업차 출항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쯤 여수시 남면 안도 해상에서도 어선 H호의 선장 B씨(61)가 실종돼 해경이 밤샘수색을 펼쳤으나 이틀째인 이날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 작업 60대 3층서 추락해 숨져

14일 오후 3시3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원룸에서 에어컨 실외기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A씨(60)가 추락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소방당국 등은 에어컨 설치 기사인 A씨가 원룸 3층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공사 책임자를 소환해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완도 양식장 60대 다리절단...닥터헬기로 긴급이송

해상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해경 등이 남성을 닥터헬기로 긴급이송했다.

14일 오후 2시쯤 전남 완도군 보길도 남서쪽 12km 해상에서 양식장 그물 작업을 하던 A씨(63)가 배에 연결된 줄에 왼쪽 다리가 걸려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닥터헬기를 즉시 요청한 후 A씨를 오후 2시26분쯤 보길도 보옥항에 이송했다.

이후 보옥항에 도착한 닥터헬기를 이용 A씨를 목포소제 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A씨는 선상에서 양식장 그물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조류에 배가 밀리면서 바지선에 연결된 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리 봉합 수술을 마친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빠 차 몰래 몰다 차량 5대 충돌 도주한 중학생

중학생이 아버지의 SUV차량을 몰다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군(14)은 지난해 15일 오후 6시께 양주시 고읍동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연달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로 SUV 앞을 가로막은 뒤 검거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부모 입회 하에 자세한 범행경위와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